'드론축구 국회 시연회' 30일 개최

대한드론축구협회 발전 · 드론산업 육성 예산확보 등 현안 해결 교두보 마련 기대

전주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는 국회에서 드론축구 시연행사를 갖는다.

대한드론축구협회(협회장 김승수 전주시장)와 김광수, 정동영, 정운천 국회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지역연고 및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전주시의원 및 드론축구 전국 지부장, 선수단, 일반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축구 국회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와 캠틱종합기술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대표 ICT 레저스포츠로 발돋움한 드론축구의 저변확대와 대외홍보를 위한 홍보행사로 국회에서 시연행사가 열리면서 대한드론축구협회 발전과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현안해결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길이 10m, 너비5m, 높이 4m 규모의 드론 전용경기장이 설치되고 내빈 시축 및 시연, 시범경기 및 체험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드론축구 제품 및 서비스를 전시하고 홍보하는 부스도 마련돼 국회를 방문하는 내빈과 일반 시민들이 드론축구의 묘미를 만끽하고 첨단 드론기술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드론축구의 묘미와 강점을 적극 소개해 대한드론축구협회 발전 및 드론축구를 중심으로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비 확보 등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글로벌 마케팅 강화와 세계대회 개최 추진 등으로 드론축구의 세계화를 향해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정치 중심지 국회에서 드론축구의 진면목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전주민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레저스포츠, 관광, 문화예술 등과 연계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탁틴내일, 아동 · 청소년 인권 단체로

'전주지부 정체성 정립 위한 거듭나기' 총회 개최

아동 · 청소년 인권 단체인 탁틴내일의 전주지부 2018년도 총회는 24일 전주시 고궁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탁틴내일 전주지부는 이번 총회를 '탁틴내일 전주지부 정체성 정립을 위한 거듭나기' 총회로 명명하고 성교육을 중심으로 성인권에 치중했던 활동을 아동 ·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운동 단체로 거듭날 것을 결의한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강연의 자리가 마련된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이 강연하는 이 강연회는 아동 ·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탁틴내일 전주지부 회원 뿐만 아니라 아동 · 청소년 인권에 관심 있는 활동가, 청소년, 시민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탁틴내일은 이 날 강연회에 이어 아동 · 청소년이 처한 현실에 대한 재고와 단체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아동 ·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비전 선언문'을 채택한다.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운영 결산, 올해 예산 및 주요 사업 계획 확정, 대표 및 운영위원장 선임, 운영위원 및 활동가 위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아동 · 청소년의 발달권과 관련한 교육권, 여가권, 노동권 및 인권과 관련된 주요 활동에 대해 논의하여 단체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운영위원회는 대표로 전주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 정경주 씨, 운영위원장으로 모두학교 교장 김병희 씨를 추천했고 이 날 회의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총회와 강연회는 탁틴내일 전주지부가 성인권 분야의 활동에서 아동 ·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을 위한 활동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며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친인권적 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아동 · 청소년의 친인권적 문화로 조성될 수 있도록 탁틴내일 전주지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나눔천사,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과 MOU 체결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2일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MOU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파견된 전주시 나눔천사 해외봉사단은 앞서 파견된 35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25명과 합류해 파톡 2번학교에서 벽화 봉사활동과 내부 시설물 보수를 하는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현지파견 봉사단은 족자카르타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위한 가자마다 대학과의 MOU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와 면사무소, 경찰서를 방문 하는 등 자원봉사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해외봉사단은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이 진행하는 교육봉사와 노력봉사,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진행되는 K-pop과 태권무, 부채춤 등 문화교류활동을 마지막으로 현지 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고대영 퇴진" 22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893차 임시이사회에서 KBS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주시, 도로시설물 정비 실시

전주시는 폭설과 눈길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수하기로 했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오는 2월 초순까지 교통안전 시설물을 일제점검 · 정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폭설과 한파, 빙판길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수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기존의 노후된 시설물도 함께 점검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채규남 기자

'손 씻기만 잘해도 감염병 70% 예방 효과'

전주시보건소, 겨울철 유행 감염병 예방 위한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전주시보건소는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와 노로바이러스, 수두 등 겨울철에 유행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를 당부했다.

22일 보건소에 따르면 올바른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생활 수칙으로 손 씻기만으로 전체 감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을 경우에는 물로 씻을 때보다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다.

또한 올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한 이후 지속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 ·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접종과 기침예절,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들이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전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요양병원 등에 올바른 손 씻기 체험교육을 위한 기자재(형광로션, 뷰박스, 손 씻기 판넬 등)를 대여하는 등 시민 체험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손 씻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손 씻는 습관에 대해 인지하고 잘못된 손 씻기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변호 전주시보건소장은 "소홀하기 쉬운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손 씻기 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도로 늦게 건넌다"며 행인 집단폭행한 4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0일 오전 4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4명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B(26)씨 일행이 차량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 등은 B씨 일행이 도로를 늦게 건넌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다 시비가 붙어 B씨를 바닥으로 넘어트리고 발로 차는 등의 집단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후유장해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A씨의 행위를 시작으로 일행이 피해자를 집단 가격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범자들의 신원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가담 정도와 책임을 축소하는데 몰두한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진입로 막은 컨테이너 몰래 치운 건물주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절도 혐의로 건물주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건물의 신축 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설치한 컨테이너를 크레인을 이용해 인근 밭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의 공사를 맡은 B씨는 건물주 A씨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당장 돈이 없어 공사대금을 못 줬다"며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건물 진입로를 막아 치웠을 뿐이다"고 진술했다. /이상민 기자